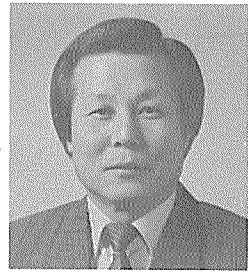


“경제 재건의 기치를 드높인 영국”

—영국의 투자환경조사 출장記—



이 우 종
본회 업무이사

필자는 영국의 상공부(Departmen Of Trade & Industry) 초청을 받아 현지 투자 환경조사단의 일원으로 '94. 3월 12부터 24일까지 런던을 출발하여 영국의 중북부 지역을 동쪽에서부터 북쪽의 뉴캐슬(New Castle)까지 둘러보며,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전자 업체들과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각 지역의 개발공사들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필자에게 셰익스피어와 윌리엄 워즈워드로 인상지어지는 영국은 한국의 남북한을 합친 면적과 비슷한 241,752km²에 인구는 5,780만으로, 여행하는 동안 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부드럽고 야트막한 구릉지대와 비옥한 평야만이 내 앞을 스쳐 갔으며 한국에서와 같은 아파트도 거의 볼 수가 없어,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복 받은 나라”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윌리엄 워즈워드의 생가 근처를 지날 때, 한 문호의 개인적인 영감에 주변환경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게 하는지 새삼 생각해 할 정도의 경관에 잠시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의 영국은 조선, 철강, 석탄 등 이전의 기간산업이 사

양화 되어 많은 유희지대와 유희노동력이 발생하여 '93년 말 실업률은 10.7%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각 지역마다 실업률의 차이가 있어 특정 지역은 13.5%를 상회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코자 외국인 업체 투자유치를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자산업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일본 다음으로 한국이 발전하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전자업체를 유치하여 실업률 증가에 대처하는 한편 전자산업도 발전 영국투자현황 (전자부문)

시킨다는 목적이 뚜렷한 것을 이번 조사기간 동안 느끼게 되었다.

또한 여러 전자업체들을 방문하는 중에 현지 종업원들의 성실하고 근면한 근무자세를 보면서 평소 생각해 오던 선진국 근로자들의 근로태도에 대한 사고가 편향되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공장 매니저의 말을 빌리면, 근무중 사적인 전화 및 용무는 절대 삼가하고 있으며 상사가 지시한 사항은 상사가 잊어버리고 있다 라도 꼭 챙겨서 보고를 하는 등 한국인에 비하여 책임감이 강하므로

(단위 : 백만달러, %)

업체명	현지법인명	생산품목	자본금	투자율	조업년도
금성사 (Newcastle)	GSEUK	MWO	7	100	'89. 5
삼성전자 (Billing Ham)	Samusng Elec. Manufacturing Ltd.	CTV	7	100	'87. 8
선경마그네틱(SKM) (London)	Sunkyoung Magnetic Europe Ltd.	A-tape	0.2	90	'92. 5
대우전자 (Belfast)	Daewoo Electronics (U. K.) Ltd.	VCR	5	100	'89. 4
인 켈 (Newcastle)	Inkel Ltd.	CDP Car-Audio Receiver	3	100	'90. 7
삼미기업	Sammi Sound Tech. (U. K.)	Speaker	3	100	'93. 12

주) 본회 조사 자료



공장관리가 수월하다는 말을 전해 주었다.

런던 근교에 위치한 하워드사(Hertfordshire) 대학을 방문했을 때 초현대식 기자재를 갖춘 실험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우리나라 대학을 생각하며 자못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 대학은 산학협동이 잘 이루어져 많은 산업체들로부터 위탁받은 연구비로 여러 제품을 연구하고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산업체에 투입되어 학교 연구 생활을 그대로 직무에 연계하여 바로 개발에 참여한다고 한다.

공대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적어도 1년 내지 2년간 수습기간을 거쳐야 비로써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실정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영국의 각 주에는 개발공사가 있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필자는 체류기간 동안 4개 주의 개발공사를 방문하였으나 하는 일은 각 주마다 거의 동일하였기 때

문에, 그 중 우리나라 업체가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뉴캐슬(New Castle)시에 위치한 북잉글랜드 개발공사(NDC: Northern Development Company)의 주요 업무를 소개코자 한다.

이 공사는 중앙정부에서 60%, 지방정부에서 20%, 그리고 지방업체들로부터 나머지 20%의 지원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주 업무는, 공장건물이나 공장위치에 관한 각종자료 제공 및 방문알선, 근로자고용 및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제공, 금융지원을 위한 공인회계사 자문제공, 공공시설물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 시장조사 및 통상정보제공, 투자환경 조사시 각 분야의 전문가 소개, 투자허가 및 무상보조금 주선 등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곳을 통하면 투자시 손쉽게 필요한 관련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다.

이와 병행하여 영국의 각 주 정부에서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여러 지방정부들은 투자액의 30%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

는데, 어느 지방의 경우는 심지어 50%까지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투자시 재정지원 면에서 충분히 여러 주를 검토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한 그 밖에도, 일정기간 법인세 면제나 현지 채용 직원의 훈련비 보조 또는 저율의 은행융자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었다.

현재 영국에 투자한 한국 업체는 총 10개 사에 이르고 있는 데 그 중 6개 사가 전자업체이다.

모든 진출업체가 저마다의 특징을 살려 대부분 현지화에 성공하고 있었으나, 여기에서는 그 중 생산과 현지 유통에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 현지 투자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끝으로 간단하게나마 삼성전자 현지공장(CTV)의 운영현황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 공장은, 현지 인건비가 한국에 비하여 50% 정도 저렴하고 생산성도 한국에 뒤지지 않기 때문에 매년 생산량을 증가시켜 '93년에 C-TV를 40만대 생산하였으며, 이어 '94년에는 70만대 생산할 예정이라 한다.

또한 영국은 인건비를 연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상여금이나 후생복지비 등 일체의 간접비가 들어가지 않으며 관리요원도 한국과 같이 많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종업원들도 주어진 일에 책임감이 강하고 일에 열심이므로 공장관리가 매우 수월하다고 하며 또한 구인문제도 실업자가 많아 노동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종업원 70명을 모집하였는데 2,000명 이상이 지

원하여 치열한 취업경쟁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2주간의 짧은 방문기간으로 영국 전체의 투자환경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나, 향후에도 영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투자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및 홍보활동에 힘입어 많은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업원들의 성실한 근무 자세와 공무원들의 겸손한 봉사정신은 현

재의 영국을 지탱하고 있는 커다란 축으로서, 해외투자 적정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해외기업들의 선호도를 자극하고 있다.

여기에 영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일층 그 매력적인 요소가 더해지고 있다.

이들 현지인들과 우리나라의 근로자 및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 느꼈던 많은 차이점들은 필자에게는 다시금 새삼스레 우리나라의 현실

을 뒤돌아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쟁력의 원천이 될 기술기반 구축을 위하여 꾸준히 힘써야 할 것이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 획기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외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므로써 이들 자본과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나라 전자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다.

시사용어 ①

AIDA

Asi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ssociation의 약자로 아시아 인프라개발협회라 불린다.

아시아 각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조 5,000억달러 상당의 인프라(도로 항만 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아시아 여러국이 공동으로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간 기구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각국의 인프라건설에 각국 민간기업의 광범위한 참여를 촉진키 위한 것이다. 오는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印尼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세계 인프라포럼에서 그 조직구성 기능 운영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시사용어 ②

우선감시 대상국

미국의 종합무역법 스페셜 301 조에 의거, 美무역대표부가 매년 교역상대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정도를 조사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정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는데 이중 중간단계에 속하는 국가를 지칭한다.

보호정도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면 우선협상대상국(PEC)으로 분류, 미국측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상을 벌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보복조치를 받을 수 있다.

PEC보다는 보호정도가 나은 편이지만 충분한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엔 우선관찰대상국(PWL)이나 관찰대상국(WL)으로 분류된다.

이는 美무역대표부(USTR)의 내부지침으로 PWL과 WL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협상의무가 없다.

시사용어 ③

FRB

Federal Reserve Board의 약자로 美연방준비제도이사회.

미국의 중앙은행적인 연방준비제도의 최고기관으로 미국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역할을 한다.

FRB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하는 7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정치적 압력을 차단키위해 이사들에게 14년 단임임기가 보장된다.

공정할인율, 예금준비율의 변경 및 공개시장조작, 연방준비권의 발행과 회수 등을 감독하는 FRB는 이사전원과 뉴욕연방은행총재 및 다른 연방은행총재 중에서 교대로 선출되는 4명을 합해 모두 12명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에서 공개시장조작방침을 결정하지만 집행은 뉴욕연방은행이 수행한다.